

묵주기도의 모후

2021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는 “묵주기도 성월”이며 우리 어머니이신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을 지내는 10 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기리기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성모님은 여러 차례 “손에 묵주를 든” 모습으로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묵주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묵주기도는 성모 신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 그렇지만) 그 기초는 그리스도론적이고, 주인공은 동정 마리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상, 묵주기도의 여러 신비들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 생애의 대표적 순간들의 사진들과 같습니다.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의 복음에서(루카 1,26-38)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비를 관상합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모님의 “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육화하십니다. 주인공은 성모님 태중에 육화하신 예수님이시고, 마리아는 도구 역할을 하십니다.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관상하도록 이끌어 주는 단순하고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손을 잡고 아드님께 갑니다. 묵주기도의 각 신비들을 관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법을 성모님께 배우고, 복음 메시지의 깊이를 체험합니다. 묵주기도는 복음의 원천에서 직접 길러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줍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묵주기도가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상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고 기도는 기계적인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님의 신비들을 묵상하는, 확신을 갖고 성찰하는 주의깊은 기도를 요구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묵주기도의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치와 친교를 굳세게 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riora General